

조세호 합류 '무도' 新 6인체제 기대감 높이는 이유



개그맨 조세호가 '무도' 5인 체제의 멤버로 확정됐다. 총파업 이후 12주 만에 재개된 방송에서 도우미를 자처하며 모습을 드러낸 조세호는 물오른 입담과 예능감을 자랑하며 새로운 멤버로 낙점됐다. 6일 방송된 MBC '무도'에는

물오른 입담 · 예능감 자랑하며 멤버로 낙점 양세형과 환상 시너지 · 유재석과 찰진 호흡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듀서의 변신 조세호는 누구인가 편으로 꾸며졌다. 조세호에 대한 개인적 궁금증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며 조세호에 대해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세호만을 위한 코너였다. 유재석은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을 패러디하며 사생활 잠금부터 방송에 대한 자세까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세호의 절친인 이동욱이 등장에 증언하는 시간을 가졌고, 거짓말 탐지기와 몰래카메라를 수순으로 새 식구 조세호맛이에 나섰다. '프로듀서'였던 조세호는 이제 못집을 내려놓고 '무한도전'에 정착했다. 이날 방송 말미 유재석의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희 무한도전 역시도 조세호 씨를 원하고 있었습니디"라는 내레이션을 통해 '무한도전' 측 역시 그의 합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식스맨 특집을 통해 합류한 황광희가 지난해 3월 입대한 후 공방이 있었던 터. 10개월 만에 조세호가 새 식구로 합류해 그 자리를 채우게

됐다. 양세형 역시 자연스럽게 '무한도전' 도우미로 시작해 고정 식구가 된 바 있다. 현재는 완벽하게 적응해 멤버들과 어우러져 개방정 개그를 보여주고 있다. 조세호는 그런 양세형과 환상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고, 유재석과 찰진 호흡을 자랑하고 있다. 기존 식구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조세호가 멤버로 합류한 만큼 그 효과는 배가 될 전망이다. 한 방송관계자는 "유재석이 평소 조세호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다. 기존 '무한도전' 멤버들 역시 조세호가 좋아하는 마음이 커 합류 자체가 청신호였다"면서 "조세호에 대한 제작진의 호감도 커 여러모로 그의 합류를 반기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특히 '무한도전'은 6인 체제가 오래도록 유지되어 온 대표 예능 프로그램. 어떠한 미션이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6인이 최적의 조합이었다. 이에 김태호 PD는 멤버 재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터. 5인 체제 당시 김 PD는 "멤버 5인이 '무한도전'을 끌고 가기에 어려움이 많아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5인 체제는 확실한 한계점이 있기에 멤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고 밝히며 멤버 영입에 대한 의사를 표했다. 이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찾은 새 식구가 바로 조세호. 순발력이 넘나든 그의 합류로 2018년 한층 활약이 기대되는 '무한도전'이다.

KBS 새 예능 '절찬상영중' 제목의 의미



찾아가 야외극장을 만들고, 영화를 상영하는 모습을 담은 리얼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영화'는 여러 감정을 선사하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영화를 보고 배꼽이 빠질 만큼 웃을 때도, 눈물이 솟아날 만큼 슬플 때도 있다. 가슴이 먹먹할 만큼 묵직할 때도 있고, 깊은 생각에 잠길 때도 있다. 이 같은 셀 수 없는 감정들

에 제목이 '절찬상영중' 일까. 9일 화요일 밤 11시 10분 KBS 2TV 새 예능 '절찬상영중-철부지 브로망스'가 첫 방송된다. 성동일, 고창석, 이준혁, 이성경 네 배우가 출연한다. 지난 3일 '절찬상영중-철부지 브로망스'의 편성 확정기가 공개됐다. 이후 4일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색깔과 함께 네 멤버들의 특별한 케미를 엿볼 수 있는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다. 이는 첫 방송을 기다리는 많은 예비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그 중에서도 예비 시청자들이 가장 많은 궁금증을 쏟아낸 것이 '절찬상영중'이라는 프로그램의 제목이다. '절찬상영중'은 보통 영화계에서 쓰이는 용어로, 뜨거운 흥행 속에서 영화가 상영될 때를 일컫는다. 영화 예고편 말미 '절찬상영중'이란 커다란 자막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용어가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된 것. 궁금증이 풀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절찬상영중-철부지 브로망스' 프로그램의 콘셉트 색깔 기획 의도 등과 연관이 있다. '절찬상영중-철부지 브로망스'는 성동일, 고창석, 이준혁, 이성경 4인 4색 배우들이 직접 영화 불모지를

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추억'으로 우리 마음 속에 남겨 된다. 그렇기에 누구나 '영화' 관련 추억 하나씩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다. '절찬상영중-철부지 브로망스'에서는 이들을 위해, 배우들이 직접 영화 불모지를 찾아가 작게나마 야외극장을 만들고 영화를 상영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극장을 만드는 것이다. 작지만 따뜻한 야외극장에서 영화가 '절찬상영중'인 것이다. '영화'와 함께라서 결코 빠지지 않은 웃음과 감동, 성동일, 고창석, 이준혁, 이성경 네 배우들이 보여줄 솔직한 모습, 충청북도 단양군 애곡리 주민들과 나눈 의미 있는 소통까지, 제복만큼이나 반짝이는 이야기들 들려줄 예능 KBS 2TV '절찬상영중-철부지 브로망스' 첫 방송이 기대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배우들이 직접 찾아가는 영화관, 시골마을 낭만극장 '절찬상영중-철부지 브로망스'는 9일 화요일 밤 11시 10분 KBS 2TV에서 첫 방송된다.

멜로망스 → 문문 → 장덕철 인디들의 반란, 그 의미



인디 뮤지션들이 '역주행'의 기적' 주인공들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불췌간 사춘기가 역주행 열풍을 일으키며 대중의 취향을 저격하는 뮤지션으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따르는 인디 뮤지션들의 활약이 반갑다. 팬들의 영향력이나 흥보의 힘에 보여주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음원차트 개편 이후 더 많은 흥

은 뮤지션들의 발끝이 이어지고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해 보컬그룹 장덕철이 역주행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됐다. 음원차트를 서서히 장악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좋은 음악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차트 1위까지 올랐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던 장덕철이지만, 아젠 음원차트마다 이들의 이름이 메인으로 떠올랐다. 장덕철의 역주행은 지난해 멜로망스가 기록했던 행보와 닮아 있다. SNS 인기가 차트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 팬들이 큰 아이돌 음악들이 차트 상위권을 장악하던 과거와는 달랐다. 유명세가 없더라도,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가수가 아니더라도 음악으로 꾸준한 사랑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 방송과 팬들보다는 온라인, SNS 힘이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덕철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곡

'그날처럼'으로 꾸준히 차트를 노크했다. 역주행을 기록하면서 서서히 상위권에 올랐고, 결국 1위까지 해냈다. '강자인 박효신의 컴백으로 당분간 박효신 천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장덕철이 예상외로 달성해낸 성과다. 장덕철의 이전에는 멜로망스와 문문이 있었다. 멜로망스도 '선물'이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성과가 차트로 드러났던 사례. 이들은 지난해 윤종신과 함께 새로운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차트를 장악하고 가요계를 놀라게 했다. 꾸준한 흥행으로 좋은 음악이 갖는 저력을 입증한 멜로망스다. 멜로망스에 이어 문문이 2017년의 마지막 역주행 주인공이었다. '비행운'이 발표 1년여 만에 역주행으로 음원차트 1위를 기록한 것. 지난해 발표한 앨범의 수록곡이 1년 만에 차트에서 다시 주목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 당장의 '차트인'도 중요하지만, 멜로망스와 문문, 그리고 장덕철처럼 인연가 발굴될 좋은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에게 특히 더 의미 있는 성과들이다.

'위대한쇼맨', 韓영화 강세속 100만 돌파



이시이 한국 영화의 강세속에서도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위대한 쇼맨'은 이날 누적 관객수 103만2497명을 기록했다. '위대한 쇼맨'은 19세기 미국 서커스단장이자 흥행업자였던 피니어스 테일러 바넵(1810~1891)을 모티브 삼아 만들어진 작품이다. '바넵' (휴 잭맨)이 서커스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을 다룬다.

휴 잭맨 주연의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 (감독 마이클 그레이 이시이) 한국 영화의 강세속에서도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위대한 쇼맨'은 이날 누적 관객수 103만2497명을 기록했다. '위대한 쇼맨'은 19세기 미국 서커스단장이자 흥행업자였던 피니어스 테일러 바넵(1810~1891)을 모티브 삼아 만들어진 작품이다. '바넵' (휴 잭맨)이 서커스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을 다룬다. '레미제라블' 이후 5년 만에 뮤지컬 영화로 돌아온 휴 잭맨을 비롯해 잭 에프론, 미셸 윌리엄스, 레베카 퍼거슨, 젠다야 등이 합류했다. 한국 영화의 흥행 쌍둥이가 계속 되고 있다.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 (감독 김용화, 이하 '신과 함께')은 11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신과 함께' 지난 8일 하루 동안 54만7196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1099만 8423명이다. 영화 '1987' (감독 장준환)은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전일 일일 관객수 43만5888명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수 369만7263명을 기록했다.

김동률 × 런던심포니, 특급 '콜라보'



뮤지션 김동률이 14년 만에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업하고 녹음 현장을 공개했다. 오는 11일 앨범 '담장'을 발매하는 김동률은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소재 예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스트링 녹음을 했다. 지난 2004년 앨범 '토로'에서 협업한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앨범 타이틀과 동명의 타이틀곡 '담장'은 목공관을 제외한 현악 44인조와 녹음했다. 이 녹음을 위해서 세계적인 음악감독 박인영 씨가 LA에서 런던으로 와서 직접 지휘했다. 편곡은 유명 작곡가인 황성제와 정수인이 오랜 시간동안 함께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3개월 여 만의 새 앨범 '담장'에서 김동률은 5곡을 선보인다. 타이틀곡 '담장'을 비롯해 'Moonlight', '사랑한다 말해도(Fear. 이소라)', '연극', 'Contact'가 수록된다. 신곡 '담장' 뮤직비디오는 배우 현빈이 출연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이소라와의 듀엣곡이 수록돼 음악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률은 오는 11일 EP 앨범 '담장'을 발표하고 3년 3개월 여 만에 팬들을 만났다.

오늘의 순세 2018년 1월 8일 월요일 (음력 11월 22일)



▶**계축** 계획, 사업 등 모두 전망이 밝다. 능력주의 세대이니 허락하는 한 힘껏 밀고 나가도 좋을 듯. 한 집 버리고 신속하려면 망설이지 말고 시도하라. 2, 8, 12월생 좋은 소식 있겠다. 흰색으로 단정할 것.



▶**신축** 남의 말을 따라만 가지 말고 신념을 갖고 일을 추진하면 곧 좋은 결과가 온다. 증권이나 기타 투기는 오늘만은 승산이 크다. 그러나 그 재미로 지속해서 하지 말 것. 3, 7, 11월생 매매는 가능하나 불이익이 있다.



▶**유축** 성급한 행동은 오히려 해를 가져온다. 때를 기다리며 자기 수양에 힘쓰라. 사업이나 가정 문제도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로 재출발할 때다. 2, 9, 10월생 진실한 삶을 추구하고, 자기 한 말에 책임지며 행동하라.



▶**계축** 고생 끝에 낙이 있다. 힘든 시기는 이제 끝나고, 좋은 시기가 펼쳐지는 길일. 채우 관계나 재판 건 고심하지 말라. 하늘이 돕는다. 당신이 남자라면 아내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며 즐거움을 주라.



▶**을축** 매사가 꼬이는 것 같아도 약간의 어려움만 이겨내면 반드시 노력의 대가가 있을 듯. 애정 문제를 한 번 점검하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 나이 차이에 애정이 멀어지면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임을 알아야 한다.



▶**진축** 주변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상책이며, 문서 관계에 신중할 것. 기, 표, 초 생서는 남의 일에 휘말려 자기 것까지 다 빼앗길 수 있다. 4, 6, 10월생, 큰 자식에게 금심할 일 생길 듯. 말을 적게 하라.



▶**정축** 그동안의 수고가 결실할 시기가 수확할 때는 아직은 아니니 욕심내지 말라. 남자가 하는 일은 손조롭고, 여자가 하는 것은 초조할 뿐이구나. 3, 4, 12월생 검은색 길조.



▶**병축** 허황한 욕심을 부리기보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복을 부름을 알라.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격. 해결책을 찾아 노력할 때다. 노란색은 삼가.



▶**을축**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일이 생길 수. 희망을 품고 매진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타날 듯.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잃어주는 자제가 필요할 때다.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정축** 자기 임무에 오직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뜬소문에 동요하지 말고, 소신대로 처신하라. 사업 구상은 좋으나 우선 상대를 이해하고 조금 양보하는 자세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4, 6, 12월생 행운의 날.



▶**계축** 매사 혼란스럽고, 의욕은 하락하겠으나 협조를 청하는 것이 좋을 듯. 쓸데없이 방향하다 손재수 있으니 주의 바람. 6, 7, 9월생 사랑하는 사람과 눈치 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경제적 문제와 생업에 정신 쓸 때임을 알라.



▶**신축** 끈질긴 인내와 지혜로 대처할 때다. 주위 사람과 상부상조하면서 협조한다면 좋은 성과 있을 듯. 직장 다니는 여자는 집안 살림을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제마무리 정이 좋은 부부라도 금이 갈 수 있으니 신경 쓰임 좋다.